

조기 성문암의 임상 양상 및 치료 방법에 따른 국소재발률의 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하정훈*

조기 성문암은 치료율이 매우 높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하여 발생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조기 성문암의 병기 분류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의 병기 분류(AJCC)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분류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병기 분류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조기 성문암의 국소 재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 사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은 T1N0와 T2N0 성문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임상 양상과 치료 방법 등 다양한 변수들과 국소재발률의 관계를 Kaplan-Meier법을

포함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변수들 중 T-병기가 국소재발률에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고, 전연합부 침범 여부가 매우 의미 있었다. 전연합부를 침범한 T1 병변은 전연합부를 침범하지 않은 T1 병변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국소재발율을 보였다(65.6% 대 94.7%). 전연합부를 침범한 T2 병변의 국소재발율은 70.0%였고, 전연합부를 침범하지 않은 T2 병변은 65.3%였다.

조기 성문암의 병기 분류에 있어 전연합부 침범 여부가 비 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겠고, 전연합부를 침범한 T1 성문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